

소통과 단절의 사이에서 길을 만들다, 함경도 구비서사시 〈양산백·축영대〉 연구*

윤준섭**

<차 례>

1. 서론
2. 《문굿》의 난제와 해결의 실마리
3. 짧은 망령들에 대한 위로
4. 사랑으로 놓인 새로운 길
5. 결론

<국문초록>

《문굿》의 구비서사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함경도 망목굿은 죽음의 의례이다. 죽음으로 비롯된 생자(生者)와 망자(亡者)의 단절에서 굿이 시작되기 때 문이다. 이때 생자는 굿을 통해 망자가 저승으로 잘 가기를 희망하면서도 그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생자는 망자와 소통하는 길이 필요했다. 본 논문은 〈양산백·축영대〉의 주인공 축영대가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잇는 신이 되는 과정을 살폈다.

먼저 고전소설 〈양산백전〉과 달리 〈양산백·축영대〉는 양산백, 축영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서사시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때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제차로 알려진 《문굿》과 연관 지어 논의하면 여러 의문점이 발생했다. 실제 망목굿에서 《문굿》의 연행 여부와 《문굿》에서 〈양산백·축영대〉의 연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임석재, 장주근, 김태곤이 남겨 놓은 조사 보고에

* 본 논문은 2021년 2월 18일(목)에 개최된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겨울 학술대회[기획주제 - 단절의 시대, 고전문학 속에서 소통의 길을 찾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토론과 청중으로 좋은 의견을 전해주시신 강지연, 신동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콜마BNH 인문학 펠로우

는 〈양산백·추영대〉가 망목굿에서 구연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김태곤이 남긴 〈양산백·추영대〉에 관한 주석이다. 그는 이 서사시가 젊어서 죽은 망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본 논문은 김태곤이 이러한 주석을 붙인 것은 〈양산백·추영대〉가 ‘혼사굿’에서 구연되었기 때문임을 파악했다. 즉, 서사시의 주인공인 양산백, 추영대는 현실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승에서 사랑을 이룬 인물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렇기에 양산백, 추영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령들을 위로하는 신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임석재, 장주근이 남긴 《문굿》의 실제 명칭이다. 임석재, 장주근은 〈양산백·추영대〉가 구연되는 제차를 ‘문굿(문굿천두질굿)’이라 표기했다. 이에 본 논문은 〈양산백·추영대〉를 ‘문굿’을 넘어 ‘길굿’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양산백·추영대〉에서 추영대는 사랑의 힘으로 양산백에게 가는 새로운 길을 놓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기에 추영대는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신이 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양산백·추영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령들을 위로하는 신에 관한 내력과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신에 관한 내력이 다층적으로 담긴 서사시라고 볼 수 있다.

□ 〈양산백전〉, 양축고사, 망목굿, 문굿, 문굿천두질굿, 혼사굿, 길굿, 죽음

1. 서론

우리는 예전부터 단절의 상황에서 소통을 바라는 특별한 행위를 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과 소통하기 위한 무속의례, 즉 굿이었다. 굿을 통해 신과 소통함으로써 부자가 되거나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했다. 그런데 단절된 것은 신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다. ‘우리[나]’ 주변에 있던 ‘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특별한 단절을 경험한다.¹⁾ 이처럼 죽음으로 인해 망자와 단절된 상황에서 망자를 떠나보내며 그와 소통하고자 했던 굿을 망자천도

곳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새남굿, 동해안의 오구굿, 전라도의 셋김 굿 등이 있다.

그중 특별한 망자천도굿이 있다. 굿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사시가 풍부하게 전승되는 함경도 망목굿이 그것이다. 특히 망목굿에는 소통과 단절을 중심으로 하는 두 제차가 있다. 하나는 망목굿을 향유했던 함경도민이 중시한 <도랑선비·청정각시>가 구연되는 《도랑축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리데기>가 구연되는 《오기풀이》이다.²⁾

망목굿에서 두 제차는 《도랑축원》, 《오기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무당은 소통과 단절을 화두로 삼는 청정각시와 바리데기의 내력을 차례로 풀어낸다. <도랑선비·청정각시>의 주인공 청정각시는 거듭된 이계 여행을 통해 도랑선비와 재회한다. 도랑선비와 청정각시의 재회는 망목굿에서 생자(生者)가 떠난 망자(亡者)를 부르며 인연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모습과 닮아있다. 즉, 청정각시는 망자와 소통하기를 바라는 생자들의 바람이 깃든 여신이다. 하지만 망자는 죽은 존재이다. 다시 말해 망자는 저승으로 떠나야 한다. 이때 망자와 단절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이야기한 것이 <바리데기>이다. 바리데기는 이계 여행을 통해 어머니를 살렸지만, 결국 두 모녀는 죽었다. 이러한 두 모녀의 죽음에는 생자가 망자와의 단절을 순리로 받아들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³⁾

이와 같이 무당은 망목굿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서사시를 구연하지 않는다. 서사시를 구연하며 그 속에 등장하는 신들을 통해 망자와의 소통을 희

1)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 저, 변진경 역, 『죽음에 대하여 - 철학자 장켈레비치와의 대화』, 돌베개, 2016, 15~17쪽.

2) 본 논문은 망목굿의 제차(祭次)와 서사시를 혼용하는 것을 피하고자 제차와 서사시를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제차는 ‘《 》’, 서사시는 ‘〈 〉’로 표기한다.

3) 필자는 <도랑선비·청정각시>, <바리데기>에 담긴 소통과 단절의 양상을 ‘인연’과 ‘이연(離緣)’으로 해석한 바 있다(윤준섭, 「함경도 망목굿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14~146쪽).

망하거나 그와 단절해야 함을 엄숙히 말하는 것이다. 이후 무당은 망자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긴 〈붉은선비·영산각시〉, 〈궁산이·명월각시〉를 구연하기도 한다.

망목곳에 담긴 소통과 단절의 양상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떠나보낸 망자를 다시 볼 수 없는가?’라는 물음이다. 망자천도굿을 통해 망자가 이승을 떠나면 그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일까?

본 논문은 망목곳을 단순히 망자를 천도하는 곳으로만 보지 않는다. 망목곳을 망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생자는 망목곳을 통해 망자를 떠나보냈지만, 떠난 망자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자와 망자가 소통하는 길이 필요하다. 이때 생자와 망자가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의례가 바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문굿》이라 생각한다.

《문굿》에서 구연되는 〈양산백·축영대〉는 그간 연구자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사시 〈양산백·축영대〉에 관한 관심은 고전소설 〈양산백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태준은 〈양산백전〉을 『정사(情史)』와 『녕파지(寧波志)』에 전하는 원형을 변개한 작품이라고 언급하였으며,⁴⁾ 이후 정규복은 〈양산백전〉이 중국 양축고사를 토대로 하되 두 주인공의 재생담을 삽입시켜 한국적인 개작을 한 작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⁵⁾ 고전소설 〈양산백전〉의 깊이 있는 연구 성과와 더불어 〈양산백전〉과 〈양산백·축영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도 이어졌다. 서사시 〈양산백·축영대〉와 〈세경본풀이〉를 고전소설 〈양산백전〉과 비교한 서대석의 연구,⁶⁾ 양

4)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07~208쪽.

5) 정규복, 「〈양산백전〉 고」, 『중국연구』 4,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소 한국연구소, 1979, 51쪽.

6) 서대석, 「서사시가 연구-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99~108쪽.

축고사와 관련된 한국의 설화, 무가, 소설을 포괄하여 논의한 조동일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⁷⁾ 서대석, 조동일의 연구 이후 중국의 양축고사나 고전소설 <양산백전>이 <양산백·축영대>에 수용, 변용되는 양상은 김영선,⁸⁾ 김경희,⁹⁾ 박진태,¹⁰⁾ 정제호의¹¹⁾ 연구로 더욱 분명해졌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양산백·축영대>는 중국의 양축고사나 고전소설 <양산백전>과의 연관성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¹²⁾ 이를 통해 <양산백·축영대>가 지닌 <양산백전>과의 변별성이나 중국 양축고사와의 영향 관계는 확인되었다. 그러나 망목굿의 《문굿》이란 제차에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망목굿의 제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산백·축영대>가 《문굿》이란 제차와 연관이 있다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양산백·축영대>가 죽음의 의례인 망목굿에서 연행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 서사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망목굿이 소통과 단절을 화두로 삼는 굿이기에 망목굿의 한 제차에서 구연되는 <양산백·축영대>가 지니는 소통과 단절의 양상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7)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0.

8) 김영선, 「〈양산백전〉의 구조와 의미」, 『청람어문교육』 3, 청람어문학회, 1990; 김영선, 「〈양산백전〉 연구」, 『청람어문교육』 4, 청람어문학회, 1991.

9) 김경희, 「중국 〈양·축〉고사의 한국적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 박진태, 「중국 양축설화(梁祝說話)의 수용과 변용」, 『국문학』 75, 한국어문학회, 2002.

11) 정제호, 「서사무가의 고전소설 수용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4.

12) 중국의 양축고사나 <양산백전>과 <양산백·축영대>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 정제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기 연구에서는 설화나 중국 강창문학의 유입을 통해 서사무가가 형성되었고, 이후 소설을 파생시켰다는 견해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양산백전>과 서사무가의 관계가 더욱 깊은 것으로 논의됨으로써 고전소설의 영향을 받아 서사무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위의 논문, 20쪽).

2. 《문굿》의 난제와 해결의 실마리

함경도 망목굿에서 하나의 제차(祭次)로 진행되는 《문굿》은 〈양산백·축영대〉로 알려져 있다. 구비서사시 〈양산백·축영대〉는 현재 두 편이 전해진다. 1965년 9월에 채록된 강춘옥 구연 〈양산백·추양대〉¹³⁾와 1966년 5월에 채록된 이고분 구연 〈치원대·양산복〉¹⁴⁾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비교적 조사 환경이 양호한 강춘옥 구연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¹⁵⁾ 강춘옥 구연 〈양산백·축영대〉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⁶⁾

- (1) 양산백은 양추양의 아들이고, 축영대는 취성(姓)의 딸이다.
- (2) 양산백과 축영대는 부모가 산에 가서 석 달 열흘 백일기도를 드리고 난 뒤 태어난다.
- (3) 양산백과 축영대는 여덟 살 무렵 은하사 절에 글공부를 하러 간다.
- (4) 양산백이 열여섯 살, 축영대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둘은 한강에서 목욕을 한다.

13) 강춘옥 구연, 임석재·장주근 채록, 조사일자: 1965년 9월 27일(임석재·장주근, 『관북 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143~154쪽).

14) 이고분 구연, 김태곤 채록, 조사일자: 1966년 5월 21일(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98~101쪽).

15) 김태곤은 이고분의 망목굿을 채록할 당시 조사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李氏를 처음 만난 것은 1964年 7月 4日, 서울의 弘濟洞 所在 「할미당」이었다. 그 당시 그에 관한 카드에 「1964.7.4. 함남 함흥, 신경질」이라 기록된 것을 보면 그와의 對話나 접근이 어려웠던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주로나 이름 성까지도 묻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쌀쌀하고 신경질 적이었다. 그 후 만 2年 동안 꾸준히 찾아다니며 對話의 길이 조금 띄어 敘事的 巫歌의 이야기 줄거리를 이야기 式으로 유도해서 그의 興을 돋운 다음 몇 번이나 간청하여 敘事的 巫歌만을 錄音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하루를 초빙하여 錄音된 것이 여기에 收錄한 巫歌다”(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71~72쪽).

16) 강춘옥 구연본에는 ‘축영대’가 ‘추양대’, ‘추영대’로 불리고 있다. 원문을 살려 ‘추양대’, ‘추영대’로 하는 것이 옳지만 양축고사 및 〈양산백전〉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축영대’로 표기한다.

- (5) 축영대는 윗물에서, 양산백은 아랫물에서 목욕을 하는데 혈수(血水)가 아랫물로 내려온다.
- (6) 양산백은 축영대가 다친 줄 알고 급히 윗물로 올라갔는데 축영대는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때부터 양산백은 축영대가 여자임을 알게 된다.
- (7) 양산백이 축영대에게 청혼한다. 축영대는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며 집으로 간다.
- (8) 축영대가 부모에게 양산백과 혼인하겠다고 한다. 부모는 그녀를 귀가문(貴家門)에 보내겠다고 거절한다.
- (9) 축영대를 집으로 보낸 후 양산백은 그녀를 잊지 못해 좌불안석(坐不安席)으로 보낸다.
- (10) 양산백도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축영대의 집안에 허혼(許婚)할 것을 요청한다.
- (11) 양산백의 부모가 축영대의 집안과 혼인을 알아보려 하는데 축영대의 집안이 다른 가문과 허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12) 양산백은 축영대의 허혼 소식을 듣고 놀라 죽는다. 이때 양산백은 자신을 축영대가 시집가는 길에 물어달라는 말을 남긴다.
- (13) 축영대는 양산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그리워하며 통곡한다.
- (14) 시집가는 날이 되자, 축영대는 가마를 타고 집을 나선다. 축영대를 태운 가마는 양산백의 무덤 근방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 (15) 가마에서 내린 축영대는 양산백의 무덤 앞에 선다. 축영대는 양산백의 묘에 가서 그의 묘가 분명하면 표지를 달라고 한다.
- (16) 양산백의 묘가 갈라지고 그 속으로 축영대가 들어간다. 이때 축영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축영대의 나삼 자락을 잡아 나삼 자락이 푸른 나비, 붉은 나비, 흰 나비가 된다.
- (17) 양산백과 축영대는 천생배필이 되어 극락세계로 간다.

양산백과 축영대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다. 처음에 양산백은 축영대가 여자인 줄 몰랐다. 그러다 둘은 삼오이팔(三五二八), 곧 천연여질(天然麗質)이 절로 생기는 나이에 이르게 된다. 양산백은 축영대가 여자임

을 알게 되고 정에 이끌려 혼인을 청하자, 축영대도 양산백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다만, 축영대가 양산백과 혼인을 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런데 축영대의 부모는 둘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딸을 귀한 집안에 시집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곧,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에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 이 서사시는 두 남녀의 사랑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하지 않는다. 양산백이 축영대의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죽기 때문이다. 상사(想思)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양산백은 죽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자신을 축영대가 시집가는 길가에 묻어달라는 것이다. 곧이어 양산백이 죽었다는 소식이 축영대에게도 알려진다. 이에 축영대는 크게 통곡한다.¹⁷⁾ 그러던 중 축영대는 시집가는 날이 되어 가마를 타고 집을 나서고, 도중에 양산백의 묘 근방에 이르게 된다.

이때 서사시에는 신이한 장면이 표현된다. 축영대의 가마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축영대는 가마에서 내려 그의 묘 앞으로 간다. 그리고 축영대는 양산백을 그리워하며 묘 위를 자신의 비녀로 긋는다. 그러자 두 번째 신이한 장면이 포착된다. 양산백의 묘가 둘로 갈라지고 축영대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그녀가 입었던 나삼 자락은 나비가 된다. 이후 그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사시의 말미를 보면 양산백과 축영대는 극락세계로 가서 천생배필이 되었다고 한다. 곧,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승[극락]에서는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양산백, 축영대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는 비단 서사시뿐만 아니라 설화나 고전소설에서도 발견된다. 그중 고전소설 〈양산백전〉은 두 인물의 사랑 이야기를 문헌으로 기록한 대표적 작품이다. 그런데 〈양산백전〉과 〈양산백·축영대〉는 장르가 다르듯이 그 내용 역시 다소 차이가 있다. 〈양

17) 서사시의 음원 자료를 들어보면, 구연자[강춘옥]는 축영대의 통곡 대목을 길게 노래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술할 예정이다.

산백전)은 <양산백·축영대>보다 분량이 긴 만큼 보다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양산백전>에는 양산백, 축영대뿐만 아니라 정혼자인 심생[김생]이 등장한다. 특히 필사본 <양산백전>은 추양대를 잃은 김생의 상심과 그의 회심(回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⁸⁾

나아가 판각본, 구활자본 <양산백전>에는 새로운 인물이 다수 등장한다. 북방 오랑캐와 이들에게 패배한 왕균, 양산백을 대도독으로 임명한 임금 등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김경섭의 지적대로 판각본, 구활자본 <양산백전>에 양산백, 축영대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군담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⁹⁾ 이때 후반부에 삽입된 군담은 양산백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종의 영웅담으로 볼 수 있다. 범박하게 보면, <양산백전>은 <양산백·축영대>와 달리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정혼자, 북방 오랑캐, 임금, 왕균 등의 인물이 등장하여 사랑 이외의 다양한 사건을 표현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양산백전>을 염두에 두면, <양산백·축영대>가 무엇을 말하는 작품인지 명확해 보인다. <양산백전>과 달리 <양산백·축영대>는 양산백, 축영대에 한정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중심으로 서사시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때 서사시의 문체 상황은 큰 틀에서 하나로 이해된다.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이 어긋난 것이다. 어릴 적부터 함께 하던 두 사람은 축영대 부모의 반대로 이별하게 되고 이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된다. 양산백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이로 인해 축영대는 그의 무덤 앞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축영대가 양산백의 무덤으로 들어가 극락세계에서 천생배필이 되는 것으로 서사시는 끝을 맺는다. 요컨대 <양산백·축영대>는 어릴 적부터 함께 했던 두 남

18) 김동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양산백전> 고찰」, 『고소설연구』 46, 한국고소설학회, 2018, 18~19쪽.

19) 김경섭, 「<양산백전>에 나타난 영정담과 군담의 결합 양상」,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124쪽.

녀의 이별과 재회를 담은 사랑을 노래하는 이야기다.

이처럼 〈양산백·축영대〉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이 담긴 서사시다. 문제는 〈양산백·축영대〉를 이 서사시가 구연되는 제차인 《문굿》과 연관 지어 논의할 경우 여러 의문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산백·축영대〉는 망목굿의 한 제차인 《문굿》에서 구연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제 망목굿 연행 제차에 관한 조사 보고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발견된다.

<p>자료① : 『관북지방무가』 소재 망목굿 제차 [조사자: 임석재·장주근, 1965년 조사]²⁰⁾</p> <p>1. 부정풀이 2. 토세 굿 3. 성주 알림 4. 문 열어 千手 5. 청배 굿 6. 앉인 굿 7. 타성 풀이 8. 왕당 千手 9. 화청 10. 동갑 썰기 11. 도랑 축연 12. 짐 가제 굿 13. 오기 풀이 14. 山川 굿 15. 문굿 16. 돈전 풀이 17. 상시관 놀이 18. 천디 굿 19. 하직 千手</p>
<p>자료② : 『함경도 망목굿』 소재 망목굿 제차 [조사자: 임석재, 1981년 조사]²¹⁾</p> <p>1. 부정풀이 2. 토세굿 3. 성주굿 4. 문열이천수(千手) 5. 청배굿 6. 앉인굿 7. 타성풀이 8. 왕당천수 9. 신선굿 10. 대감굿 11. 화청 12. 동갑접기 13. 도랑축원 14. 짐가제굿 15. 오기풀이 16. 산천굿 17. 문굿 18. 돈전풀이 19. 상시관놀이 20. 동이부침 21. 천디굿 22. 하직천수</p>
<p>자료③ : 『한국무가집(3)』 소재 망목굿 제차 [조사자: 김태곤, 1966년 조사]²²⁾</p> <p>1. 지적굿 2. 성주굿 3. 門열이千手 4. 타 승 5. 치원대 양산복 6. 충열굿 7. 동갑적제 8. 궁상이굿 9. 七公主굿 10. 도랑선비 11. 진가장굿 12. 왕달千手 13. 상시과 14. 중니가름 15. 마당도리</p>
<p>자료④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 소재 망목굿 제차 [조사자: 장주근, 조사일 미정]²³⁾</p> <p>1. 不淨 2. 토세굿(터주굿) 3. 成主굿 4. 門열이 千手 5. 請陪 6. 앉은굿 7. 왕당千手 8. 同甲쟁기 9. 타성풀이 10. 도랑祝願(짐가제굿) 11. 옥이풀이 12. 山川굿 13. 삼자내기 14. 돈전풀이 15. 뒷전놀이</p>

위 표는 해방 이후 조사된 망목굿 제차에 대한 조사 보고이다. 망목굿의 제차는 임석재, 장주근, 김태곤에 의해 조사되었다. 자료①은 『관북지방무

20)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13~14쪽.

21) 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78쪽.

22)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71쪽.

23)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 문화재관리국, 1981, 98~99쪽.

가』에 수록된 망목굿 제차인데, 임석재·장주근에 의해 조사되었다. 자료①은 두 차례에 걸쳐 망목굿을 조사한 것이다. 1차 조사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지금섬 무당패를 대상으로 1965년 7월에, 2차 조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강춘옥 무당패를 대상으로 1965년 9월에 이루어졌다. 자료①의 망목굿 제차는 임석재·장주근이 두 무당패의 굿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자료①에서 《문굿》은 망목굿의 후반부인 《산천굿》과 《돈전풀이》 사이에서 연행됨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문굿》은 자료②에서도 발견된다. 임석재, 이보형 등 굿학회 회원들이 1981년 12월 9-10일 이틀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행해진 망목굿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임석재가 『함경도 망목굿』이란 책자로 간행한 바 있다. 『함경도 망목굿』에 수록된 망목굿 제차가 자료②이다. 자료②는 기주와 망자가 실존하는, 실제로 행해진 망자천도굿이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때 《문굿》은 자료①과 동일하게 《산천굿》과 《돈전풀이》 사이에서 연행됨을 알 수 있다.

자료③은 김태곤이 1966년 5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이고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한국무가집(3)』에 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자료③에서는 ‘문굿’이란 용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문굿》의 서사시로 알고 있는 <양산백·축영대>가 ‘치원대 양산복’이란 제차로 소개되어 있다. 임석재·장주근의 조사 보고와 달리 김태곤은 굿의 제차와 서사시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치원대 양산복’은 서사시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²⁴⁾ 아울러 <치원대 양산복>이 ‘문굿’이란 제차와 관련성을 담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④는 장주근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에 수록한 망목굿 제차에 관한 조사 보고이다. 장주근은 자료①의 조사에도 참여했

24) 이에 이고분 구연 ‘치원대 양산복’을 서사시로 이해하고 <치원대·양산복>이라 표기한다.

던 연구자인데, 그 역시 임석재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지금껏 무당 패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1980년 10월에 거행된 함경도 재수굿의 제차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에 소개한 바 있다. 이때 망목굿의 제차도 함께 소개하였는데 그 조사 보고가 자료④이다. 그런데 자료④는 자료①·②와 달리 《산천굿》과 《돈전풀이》 사이에 《삼자내기》라는 낮은 제차가 연행되었다. 이때 《삼자내기》는 망령의 강림 여부를 시험하는 제차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문굿》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돈전풀이》에서 〈양산백·축영대〉가 〈공산이·명월각시〉와 함께 구연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²⁵⁾

망목굿 제차에 대한 조사 보고인 자료①-④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된다. 첫째, 망목굿에서 《문굿》의 연행 여부이다. 망목굿의 제차에서 《문굿》이 연행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자료①·②뿐이다. 자료③은 망목굿에서 서사시 〈치원대 양산복〉이 구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문굿》에 대한 기록은 없다. 자료④ 또한 《문굿》에 대한 기록이 부재하며 〈양산백·축영대〉에 대한 기록조차 모호하다. 이렇게 보면 《문굿》을 망목굿에서 연행되는 하나의 제차라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문굿》에서 〈양산백·축영대〉의 구연 여부이다. 일반적으로는 《문굿》에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자료①·②를 통해 확인된다. 자료①에는 《문굿》을 ‘문굿천두질굿’이라 소개하며 서사시 〈양산백·축영대〉를 수록하고 있으며 자료②에서도 《문굿》을 망자의 저승길을 닦는 제차라고 소개하며 〈양산백·축영대〉의 요약본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②이다. 최근 자료②의

25) 장주근은 자료④에서 《돈전풀이》에 대해 “공상선배 明月각씨 이야기 다음에 梁山伯 祝英臺 이야기를 歌唱하는 대목”으로 언급하고 있다. 《돈전풀이》에서 두 편의 서사시[〈공산이·명월각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된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조사 대상이었던 망목굿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학계에 소개되었는데 해당 영상에서 <양산백·축영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²⁶⁾ 즉, 자료②를 통해서도 《문굿》에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셈이다. 덧붙여 자료③·④에는 《문굿》과 <양산백·축영대>의 어떠한 관련성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양산백·축영대>가 《문굿》에서 실제로 구연되는 서사시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처럼 <양산백·축영대>는 망목굿의 한 제차인 《문굿》에서 구연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망목굿에서 《문굿》이 연행되며, 동시에 《문굿》에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된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연행 상황과 더불어 <양산백·축영대>의 의미를 파악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서사시가 망목굿에서 구연되는 이유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임석재가 <양산백·축영대>를 요약하며 “저승길을 닦는데 이 무가의 줄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²⁷⁾ 그의 발언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양산백·축영대>가 망목굿[《문굿》]에서 구연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까? 다행히도 본 논문은 선학들이 남겨 놓은 조사 보고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석재·장주근, 김태곤이 자료집에 <양산백·축영대>채록본을 수록하면서 이 서사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임석재·장주근은 자료①에서 강춘옥 구연 <양산백·축영대>의 채록본을 수록하였는데, 이때 <양산백·

26) 덧붙여 망목굿 영상 자료에는 《문굿》의 연행 여부조차도 불분명하다. 『함경도 망목굿』의 사진을 수록한 김수남은 황복녀가 부채가 들고 춤을 추는 사진을 설명하며 이를 ‘문굿’이라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영상 자료를 보면서 해당 장면을 《문굿》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이 대목을 《상시권놀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윤준섭, 『함경도 망목굿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2쪽.)

27) 임석재, 앞의 책, 86쪽.

축영대)가 구연되는 제차를 ‘《문굿(문굿천두질굿)》’이라 표기했다.²⁸⁾ ‘문굿천두질굿’이라는 제차명에 주목하면 지금까지 〈양산백·축영대〉를 ‘문굿’으로만 이해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어서 김태곤은 자료③에서 이고분 구연 〈치원대 양산복〉의 채록본을 수록하였는데, 이때 〈치원대·양산복〉에 대한 간단한 주석을 덧붙였다. “이 巫歌는 젊어서 죽은 亡人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²⁹⁾ 해당 작품의 성격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망목굿에서 망자가 젊은 경우에만 〈양산백·축영대〉를 구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석은 망목굿에서 〈양산백·축영대〉의 구연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 생각한다.

끝으로 서사시 〈양산백·축영대〉 채록본의 존재이다. 〈양산백·축영대〉가 불리는 굿판은 사라졌지만 30여 년 전 굿판에서 불렀던 〈양산백·축영대〉의 채록본이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사시 〈양산백·축영대〉의 존재를 알았던 것은 이 채록본이 있기에 가능했다. 설화, 고전소설과 달리 굿판에서 불렀던 〈양산백·축영대〉의 채록본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보다 진전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굿천두질굿》에서 구연되는 〈양산백·축영대〉에 대해 살펴 보았다. 고전소설 〈양산백전〉과의 비교를 통해 〈양산백·축영대〉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서사시임을 확인했다. 덧붙여 〈양산백·축영대〉의 제의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망목굿에서 《문굿천두질굿》의 연행 여부와 《문굿천두질굿》에서 〈양산백·축영대〉의 연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임석재, 장주근, 김태곤이 남겨 놓은 조사 보고에는 〈양산백·축영대〉가 망목굿에서 구연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 해

28)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문굿》을 《문굿천두질굿》이라 하겠다.

29)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150쪽.

결의 실마리를 잣대로 삼아 망목곳에서 구연되는 <양산백·축영대>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젊은 망령들에 대한 위로

<양산백·축영대>는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곳인 망목곳에서 구연된다. 임석재·장주근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문곳천두절곳》은 《산천곳》에 이어 연행된다. 그렇기에 《문곳천두절곳》에서는 양산백과 축영대가 등장하기 이전에 산천과 관련한 사설이 불린다.

㉠ 팔도 산천의 탄생

白頭山에서 등으 부리 한포기 솟아 나와 八道 아담도에 名山으로 나가 있습니다 조선이라 하는 것은 三千里江山이고 道는 아들道인데 白頭山에 솟아난 등으 부리가 八道로 번어 나가 名山을 생기는데 한 줄기는 행정도로 번어 가서 발용산이 생기시고 절구정(擊球亭)이 생기시고 치매대(馳馬臺)가 생기시고 만구르복파를 삼고 成川江이 배합되는 州는 二十四官이요 수물네 골을 매겼읍니다. 두 줄기를 번어다가 피안도에 가서 자무산이 생기시고 모란산이 생기시고 모란봉이 생기시고 大同江이 우득하야 鴨綠江이 지득하오 州를 세니 四十二州로다 피안도는 마흔 두골을 매졌드다 근용산이 생겼소다 (중략) 여덟 줄기를 번어다가 全羅道로 번어가니 더욱山(德裕山)이 생겼소다 지리山이 생겼소다 州를 매기시니 五十에 二州로다 쉬운 두골을 매졌소다 全羅道서 지리山이 생겼어요.³⁰⁾

30) 《문곳(문곳천두절곳)》에 대한 조사는 임석재·장주근이 1965년 9월 27일에 강춘옥(구송 및 장구, 女·74세), 백가야(양훈, 女), 김금복(계금, 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채록본은 『관북지방무가』라는 제명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출간되었다(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145~147쪽[이하 인용문은 ‘『관북지방무가』, 《문곳천두절곳》, 쪽수’로만 표기]).

② 양산백, 축영대의 출생

양산백이와 추영대의 근본입니다. 양산백이는 양추양의 아들이라 산백이라 이름짓고 추영대(추양대)는 취姓의 女息이라 추양대라 이름지었습니다. 애기가 생길적에 全羅道 智異山에 가서 석달 열을을 百日祈禱를 디리나이 산백이 탄생시켜 놓고 더욱山 앞에 가서 석달 열을을 百日祈禱를 디리고 추영대 났읍니다³¹⁾

무당은 《문굿천두질굿》에서 〈양산백·축영대〉만 구연하지 않는다. 인용문①에서 보듯이 〈양산백·축영대〉를 구연하기 전에 조선팔도 산천의 내력을 언급한다. 《산천굿》에서 불렀던 산천이 창조된 내력이 《문굿천두질굿》에서 다시 한 번 불리는 것이다. 그 내용은 백두산의 한 뿌리가 조선팔도의 산천을 만든다는 것인데 함경도의 발용산[반룡산]과 성천강, 평안도의 모란봉과 대동강, 전라도의 덕유산과 지리산 등이 대표적이다.

《문굿천두질굿》에서 산천 창조를 부른 이후,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된다. 인용문②는 〈양산백·축영대〉의 서두인데, 양산백과 축영대의 출생을 말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양산백, 축영대의 출생 내력이 특이하다. 대체로 망목굿의 주인공은 적강한 인물이거나 부모의 백일기도를 통해 태어난다.³²⁾ 《붉은선비·영산각시》의 두 주인공은 천상에서 죄를 지어 적강한 인물이고, 〈바리데기〉에서 바리데기는 부모가 금상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하여 태어난 인물이다. 〈양산백·축영대〉 역시 두 주인공은 부모의 백일기도를 통해 태어난다. 이때 두 부모가 백일기도를 드린 곳이 지리산, 덕유산인 점이 주목된다. 곧, 이들은 절이 아닌 산에 정성을 빌어 태어난 인물인 것이다. 다른 서사시의 주인공들과 달리 두 인물은 그 근본을 산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에 근본을 두고 태어난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함께 성장한다. 은하사

31) 『관북지방무가』, 《문굿천두질굿》, 147~148쪽.

32) 고전소설 〈양산백전〉 역시 양산백과 축영대가 적강한 인물이다.

절에 가서 함께 글공부를 한 것이다. 그러다가 양산백, 축영대는 이성애 눈을 뜰 만큼 성장하고, 혼인을 이야기할 만큼 관계가 깊어진다. 즉, 어린 시절 함께 성장한 양산백과 축영대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애정을 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축영대의 부모가 양산백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축영대의 부모는 딸을 양산백 가문보다 더 나은 곳에 시집보내려 한다.

③ 양산백의 죽음

축영대를 貴家門에다 許婚을 해 주었습니다

양산백이 집당에 네레 와서 兩親父母 있는데 가서 축영대으 婚姻을 시기달라고 한즉으스 나가 알아 본적으스 다른데다가 許婚하여 주었다 한다. 산백이 깜짝 놀라서 죽었습니다 죽으스 유전하기를 축영대 시집가는 질이다. 물어 주우다하고 쉽이가 넘어 갔읍니다³³⁾

④ 양산백의 탈

축영대 시집 갈날이 떠억당진했소 백개(白轎) 채 앉아서 산백이는 어느 절에 있는가 이리 저리 둘러 본즉 절한판에 있소

四人轎를 타고 가는 각씨가매가 거기가 발을 부쳐 놓고 가지 못하게 하오³⁴⁾

인용문^③은 양산백이 축영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놀라 죽는 장면이다. <양산백·축영대>에서 양산백의 죽음은 다소 느닷없이 보인다. 양산백이 축영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양산백의 죽음이 뜻밖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죽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드물지 않게 발생했던 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외적인 요인으로 만나지 못하자 그리움이

33) 『관북지방무가』, 《문굿천두질굿》, 150쪽.

34) 『관북지방무가』, 《문굿천두질굿》, 152쪽.

사무쳐 병이 나 죽게 된 것이다.

덧붙여 양산백의 죽음은 무속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박진태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그의 죽음은 동양인의 죽음관에 따르면 비명횡사이자, 원사(冤死)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³⁵⁾ 양산백은 죽어서 ‘조상’이 되지 못하고 일종의 ‘몽달귀신’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양산백은 장가도 들지 못한 채 이승에 떠돌며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원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산백이 축영대가 시집가는 길목에 자신을 물어달라는 그의 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축영대가 시집가는 날 그녀는 가마를 타고 집을 나선다. 그리고 축영대를 태운 가마는 양산백 무덤 근방에 이르게 된다. 이때 〈양산백·축영대〉에서 처음으로 신이한 장면이 포착된다. 인용문④에서 보듯이 축영대를 태운 가마가 길에서 갑자기 멈춘 것이다. 이 신이한 장면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답은 양산백의 죽음에 있다. 원귀가 된 양산백이 현실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박진태의 지적대로 몽달귀신이 된 양산백이 이승에 탈을 부린 것으로 이해된다.³⁶⁾

이 장면은 〈양산백·축영대〉에서 축영대에게 닥친 두 번째 문제 상황이기도 하다. 그녀가 마주한 첫 번째 문제 상황은 부모의 혼인 반대였다. 당시 축영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부모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양산백은 죽고, 자신은 다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때 원귀가 된 양산백이 현실에 등장한다. 축영대가 시집가는 길목에서 그녀의 가마를 붙잡은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상황에서 축영대는 아래와 같이 행동한다.

35) 박진태, 「중국 양축설화(梁祝說話)의 수용과 변용」, 『국문학』 75, 한국어문학회, 2002, 227~228쪽.

36) 같은 곳.

㉑ 축영대의 해원

“나를 여기서다 네레와 주시요 소변소페 보겠읍니다”

추양대는 산백이 뵈에 가서 나삼 소매 거두고 금봉채를 머리에서 빼서 산백이 뵈이를 한판치며

“산백이 메가 분명하거덜랑 인간에 뵈(標的)을 내주시요”

메 한판이 갈라져서 추영대 들어 가오. 추영대 들어가니 메는 어부렀소.³⁷⁾

인용문㉑에서 보듯이 축영대는 원귀가 된 양산백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산백을 만나러 그의 무덤 앞으로 간다. 이때 축영대는 양산백의 무덤 앞에서 특별한 행동을 한다. 자신의 비너로 양산백의 무덤을 가리며 죽은 양산백에게 인간세계에 표지를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자 <양산백·축영대>에서 두 번째 신이한 일이 발생한다. 양산백의 무덤이 갈라지고 그 속으로 축영대가 들어가는 것이다. 축영대가 들어가자 무덤은 닫혔다.

그렇다면 축영대가 양산백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체로 양산백의 무덤에 들어간 축영대는 죽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죽음은 축영대의 순절로 해석되었다.³⁸⁾ 동시에 축영대 역시 비명횡사한 것으로 보았다. 즉, 양산백과 같이 축영대도 원귀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축영대가 비명횡사했다고 보지 않는다. 축영대의 죽음은, 곧 양산백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났는데 과연 원귀가 될 수 있을까? 동시에 축영대의 죽음은 양산백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축영대와 재회했기 때문이다. 즉, 원귀가 된 양산백의 한이 풀린 것이다. 이처럼 축영대가 양산백의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두 사람은 다시 만난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37) 『관북지방무가』, 《문굿천두질굿》, 152쪽.

38) 박진태, 앞의 논문, 228쪽.

이승에서 맺힌 한을 풀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축영대가 양산백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두 남녀의 사랑이 저승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왜 망목굿에서 원혼의 한을 풀어 주는 내용을 담은 〈양산백·축영대〉를 구연하는 것일까?

- 〈치원대·양산복〉 : 이 巫歌는 젊어서 죽은 亡人의 경우에만 적용된다.³⁹⁾

필자는 앞서 망목굿에서 《문굿천두질굿》이 연행되며 동시에 《문굿천두질굿》에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된다고 확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망목굿에 관한 여러 조사보고에 따라 《문굿천두질굿》의 연행 여부나 〈양산백·축영대〉의 구연 여부가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양산백·축영대〉 채록본의 사실 분석과 김태곤의 주석을 종합하면 《문굿천두질굿》의 실체가 조금 분명해진다. 《문굿천두질굿》에서 구연되는 〈양산백·축영대〉는 ‘젊어서 죽은 망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두 남녀의 사랑을 저승에서 다시 이루는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산백·축영대〉는 젊어서 죽은 망자를 사후에 결혼시키는 ‘혼사굿’의 내력이 담긴 서사시로 이해할 수 있다.⁴⁰⁾

〈양산백·축영대〉를 혼사굿의 내력이 담긴 서사시로 이해하면 2장에서 언급한 《문굿천두질굿》의 여러 난제가 해결된다. 먼저 〈양산백·축영대〉가 《문굿천두질굿》에서 구연된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던 것은 망자의 사정에 따라 혼사굿의 연행 여부가 달랐기 때문이다. 즉, 《문굿천두질굿》에서 〈양산백·축영대〉를 구연하는 것은 망자가 젊어서 죽은 망령일 경우에만 해당

39)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150쪽.

40) 〈양산백·축영대〉을 혼사굿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박진태의 논의에 힘입은 바가 큼을 밝힌다(박진태, 앞의 논문, 227~230쪽).

한다. 이와 달리 1981년 촬영된 망목굿[자료②]은 기주가 망자의 부인이었다.⁴¹⁾ 그렇기에 자료②의 망목굿에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⁴²⁾

한편 망자를 천도하는 망자천도굿에서 혼사굿이 진행되는 것은 비단 망목굿에만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 전라도의 셋김굿이나 동해안 지역의 오구굿에서도 혼사굿을 연행했다. 오히려 이들 지역의 혼사굿에 관한 조사 기록이 망목굿 보다 자세하다.

- 동해안 지역[오구굿]의 혼사굿: 1971년 5월 14일 경북 청하면 청진 2리 최용식(崔龍植)씨 집에서 아우 최중기(26세)의 사령을 위한 허계비굿이 행해졌다. 굿은 이금옥 무녀의 책임하에 10여 명의 무당들에 의해 14일 오전부터 시작하여 15일 아침 7시까지 진행되었다. 굿의 순서는 1) 조상 시준굿 2) 골매기굿 3) 문굿 4) 조상굿 5) 초망자굿 6) 농동우굿 7) 발원 굿 8) 꽃놀이, 등놀이굿 9) 초거리 10) 화산 11) 회송이다. 이 굿은 오구굿(사령제)이고 **특히 이굿의 특징은 문굿에 있었다.** 문굿에는 뉘건지기굿과 허계비굿이 포함되어 있다. 뉘 건지기는 죽은 최씨(26)가 부산에서 저인망 어선을 타고 어업하던 중 수사(水死)하였기 때문에 그 뉘을 건지는

41) “1981년 12월 9일~10일 이틀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망목굿이 있었다. 망인은 37년 전인 1944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김홍식씨. 함남 북청군 신포리 출생이고, 부인은 흥남 출생이었다. 82년은 망자의 환갑이 되는 해로, 자식들도 모두 장성했고, 여유가 있게 된 그들이 고인의 뉘을 위로하기 위해 굿을 마련한 것이었다”(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17쪽).

42) 덧붙여 2장에서 언급한 첫 번째 난제인 ‘망목굿에서 《문굿천두질굿》의 연행 여부’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 망자가 젊은 망령일 경우에는 <양산백·축영대>를 《문굿천두질굿》이란 제차에서 구연하는 것이다. 이때 망목굿에는 《문굿천두질굿》이 연행된다. 이와 달리 자료②와 같이 망자가 혼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망목굿에서 <양산백·축영대>를 구연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굿천두질굿》의 연행 여부를 확인하지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문굿천두질굿》의 연행을 생략하거나 <양산백·축영대>를 구연하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문굿천두질굿》을 연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지점에 대해 세심하고 유익한 의견을 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것이고, 허제비굿은 망자가 미혼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후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⁴³⁾ (밑줄 - 인용자)

- 전라도[씻김굿]의 혼사굿: 저승혼사굿 때의 씻김굿은 **먼저 처녀 망자의 묘를 총각 망자 묘 옆으로 이장하든가 합장을 하고서** 그날 밤 총각 망자 집에서 하는데 뜰에다 차일을 두 곳에 치고 각각 냇을 씻긴다. 그리고 길뒤편을 할 때만 두 질배를 합쳐 부부 씻김굿을 할 때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⁴⁴⁾ (밑줄 - 인용자)

망목굿이 진행되는 함경도와 뱃길을 함께 사용하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망자친도굿을 오구굿이라 한다. 최길성의 조사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의 무녀는 오구굿을 할 때 망자의 사정에 따라 ‘허제비굿’을 한다고 한다. 이때 망자의 사정이란 망자의 혼인 여부를 지칭한다. 망자가 미혼일 경우에는 짚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든 다음 옷을 입힌 인형인 허제비를 가지고 허제비굿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때 신랑 허제비는 사모관대를, 신부 허제비는 대례복을 입고 굿판에서 혼례를 치른다고 한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보듯이 오구굿에서 허제비굿이 행해지는 제차가 주목된다. 허제비굿을 따로 한 제차로 만들지 않고 오구굿의 한 제차인 《문굿》에서 연행하는 것이다.⁴⁵⁾ 혼사굿과 《문굿》의 상관성이 발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전라도 씻김굿에서 연행되는 혼사굿에 대한 설명이다. 씻김굿에서 혼사굿을 할 때 굿의 연행을 넘어 특별한 의례적 행위를 취한다. 그것은 따로 떨어진 처녀, 총각의 묘를 합치는 것이다. 망자의 냇을 씻

43) 최길성, 「死後結婚의 意味: 韓·中·日 比較」, 『비교민속학』 1, 비교민속학회, 1985, 12쪽.

44) 지춘상, 「珍島の 民俗 ① 진도씻김굿」, 『藝鄉珍島』 創刊號, 珍島文化院, 1984, 8면 (최길성, 앞의 논문, 22쪽 재인용).

45) 동해안 지역의 오구굿에서 연행되는 《문굿》은 신을 맞이하는 의미를 지닌 제차이다.

기기 이전에 망자의 묘를 이장(移葬)하거나 합장(合葬)하여 육신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곧, 씻김굿의 혼사굿은 죽은 남녀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함께 하는 사후 혼례식으로 볼 수 있다.

오구굿, 씻김굿에서 진행되는 혼사굿을 살펴보면,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문굿천두질굿》이 혼사굿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동해안 지역 혼사굿이 《문굿》에서 진행되는 것을 통해 <양산백·축영대>가 《문굿천두질굿》에서 진행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해안 및 함경도 지역에서는 혼사굿을 ‘문굿’이란 제차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혼사굿이 ‘문굿’이란 제차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굿》이 문을 열어 신을 맞이하는 제차이기 때문이다. 혼례를 치르려면 신랑, 신부가 있어야 하는데, 《문굿》을 통해 신랑, 신부가 굿판에 좌정하고 이후 혼사굿에서 망자들의 사후 혼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⁴⁶⁾

다음으로 전라도의 혼사굿에서 행하는 이장, 또는 합장은 <양산백·축영대>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그것은 축영대가 양산백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우리는 앞서 이 대목이 양산백과 축영대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 전라도의 혼사굿 역시 부부가 될 망자의 묘를 합장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리하면 전라도 씻김굿이 망자가 된 부부의 만남을 무덤의 이장을 통해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함경도 망목굿은 망자가 된 부부의 만남을 서사시의 구연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으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문굿천두질굿》이 혼사굿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사시 <양산백·축영대>에는 이승에서

46) 《문굿》에서는 허제비굿뿐만 아니라 뉘건지기굿을 진행하기도 한다. 뉘건지기굿은 수사(水死)한 망자의 뉘를 바다에서 건져 굿판에 모시는 행위이다. 허제비굿과 유사한 맥락으로 뉘건지기굿 역시 굿판에 망자를 모셔오는 제차인 《문굿》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승에서 사랑을 이룬 양산백, 축영대의 내력이 담겨 있음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내력이 담긴 서사시를 《문굿천두질굿》에서 구연하여 《문굿천두질굿》은 젊어서 죽은 망자를 사후에 곁손시키는 혼사굿의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곧, 양산백, 축영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자를 위로하는 신으로 볼 수 있다.

4. 사랑으로 놓인 새로운 길

우리는 앞서 강춘옥 구연 〈양산백·축영대〉에 대한 사설 분석과 김태곤이 남긴 주석을 종합하여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문굿천두질굿》의 실체가 혼사굿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사시의 주인공 양산백, 축영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령들을 위로하는 신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굿천두질굿》을 혼사굿으로 이해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보통 혼사굿은 굿의 전반부에 행해진다. 그렇기에 동해안 지역 《문굿》에서 연행되는 허제비굿 역시 오구굿의 전반부에 위치한다. 반면에 망목굿의 《문굿천두질굿》은 굿의 후반부에 연행된다. 여타의 굿과는 달리 《문굿천두질굿》이 후반부에 연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덧붙여 《문굿천두질굿》을 ‘문굿’이 아니라 ‘문굿천두질굿’으로 명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양산백과 축영대가 이승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자를 위로하는 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양산백·축영대〉가 《문굿》이 아닌 《문굿천두질굿》이란 제차명을 지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문굿》은 문을 열어 굿판에 신을 맞이하는 제차이다. 그렇기에 《문굿》은 굿의 전반부에 자리한다. 그렇다면 ‘천두질굿’은 무엇인가? 이는 망목굿의 한 제차인 〈천디굿〉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 《천디굿(또는 배송)》

금일 망령 가는 짚에 닦아실 적 어느 질부터 닦으습더이 지정 짚을 닦았습니
다. 지정 짚을 다 닦았아소서 성조 짚을 다 닦았소 토세 짚을 닦았습니다 인생
짚을 다 닦았오 전생 짚을 닦아 가오⁴⁷⁾

인용문[㉠]은 망목굿의 중반부에 연행되는 《천디굿》의 사설이다. 무당은 《천디굿》을 연행할 때 배를 가르느 행위도 함께 한다. 사설이나 무당의 행동을 볼 때 《천디굿》의 목적은 분명하다. 망자가 가는 길을 닦는 것이다.⁴⁸⁾ 이 길은 대체로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길을 닦고 있기에 《천디굿》은 ‘길굿’이기도 하다.

위 논의를 참고하면 《문굿천두질굿》의 성격이 명확해 보인다. ‘문굿’과 ‘천두질굿’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이다. 전자가 망자를 호명하여 굿판에 맞이하는 굿이라면 후자는 망자가 다니는 길을 닦는 굿이다. 곧 《문굿천두질굿》은 망자를 굿판에 맞이하고 그가 다니는 길을 닦는 의미를 지닌 제차라 하겠다. 이때 <양산백·축영대>를 구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문굿’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다면 <양산백·축영대>는 혼인하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자의 혼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양산백, 축영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령들을 위로하는 신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천두질굿’을 염두에 두고 <양산백·축영대>를 해석하는 것

47)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208쪽.

48) 임석재는 《천디굿》에 대해 “흰 천을 길게 펴서 두 사람이 양끝을 팽팽하게 펴서 잡고 위에 망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을 올려놓고 주무가 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망령이 저승에 평안히 가도록 주문으로 기원한다. 이때 망자의 유족들은 수시로 인정을 쓴다.”라고 설명하였다(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89쪽).

이다. 즉, 길을 닦는 것에 초점을 두면 <양산백·축영대>의 새로운 면모가 떠오른다.

② 양산백의 탈과 축영대의 해원

추양대 시집 같날이 떠억당진했소 백개(白轎) 채 앉아서 산백이는 어느 절에 있는가 이리 저리 둘러 본즉 질한판에 있소

四人轎를 타고 가는 각씨가매가 거기가 발을 부쳐 놓고 가지 못하게 하오
“나를 여기다 네레와 주시오 소변소페 보겠읍니다”

추양대는 산백이 뒀에 가서 나삼 소매 거두고 금봉채를 머리에서 빼서 산백이 뒀이를 한판치며

“산백이 메가 분명하거덜랑 인간에 궤(標的)을 내주시요”

메 한판이 갈라져서 추영대 들어 가오. 추영대 들어가니 메는 어부렀소⁴⁹⁾

위 대목은 ‘문곳’이 아닌 ‘길곳’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 상황은 시집가는 길목에서 축영대의 가마가 멈추는 것이다. 즉 길이 끊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축영대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 자신이 사랑하는 양산백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양산백의 죽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길이 단절되었더라도 결국 두 남녀는 새로운 길을 통해 재회한다. 축영대가 닦은 새로운 길을 통해 양산백과의 소통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축영대는 끊어진 길을 잇는 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망목곳에서 길을 닦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망목곳에서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에 ‘오기길’, ‘선간길’, ‘산천길’, ‘돈전길’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길은 무당이 해당 길과 관련한 서사시를 구연할 때 만들어진다. 즉, 무당이 서사시를 구연할 때 신들의 내력을 풀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신이 자신의 직능에 적합한 길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49) 『관북지방무가』, 《문곳천두절곳》, 152쪽.

<붉은선비·영산각시>를 구연하면 붉은선비, 영산각시가 산천신이 된 내력을 풀이하는 것과 함께 이들이 닦은 ‘산천길’이 놓인다고 볼 수 있다.⁵⁰⁾

이런 의미에서 <양산백·축영대>는 ‘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체로 망목굿에서 구연되는 서사시의 주인공들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 바리데기는 ‘오기길’, 명월각시는 ‘돈전길’을 닦는 것이다. 반면 축영대는 특별한 길을 만든다. 이 길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이승으로 오는 길일 수도 있다. 곧, 단절된 상태에 있던 망자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다.

실제 망자천도굿의 연행 현장에서 무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굿을 청하는 생자와 망자의 소통이다. 일제 강점기 망목굿 현장을 조사한 김효경은 ‘감응[kimeung]’을 망목굿의 생명으로 보았다.⁵¹⁾ ‘감응’이란 망자를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굿판에 참가한 생자들이 망아경(忘我境)에 빠진다는 것인데, 이때 망아경이란 망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망자와 생자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 즉, 망자천도굿은 단순히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해서만 거행되는 것이 아니다.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것 이상으로 생자와 망자가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연결해주는 신이 필요했고, 축영대가 이 길을 잇는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축영대는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잇는 신이 될 수 있었을까?

50) 윤준섭, 「함경도 망목굿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64쪽.

51) 김효경 저, 「巫堂に於ける辭神賽神」 『日本宗教學會第三回大會紀要』, 立正大學宗教學研究室, 1935, 293쪽; 전경수 편, 『김효경저작집』(3), 민속원, 2017, 189쪽.

52) 윤준섭, 앞의 논문, 50~51쪽.

③ 축영대의 통곡

양산백이 쉽이가 넘어가고 추양대는 양산백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대 사람은 죽었느냐

양산백이야 양산백이야 무삼일로 죽었느냐 어이하여 죽었느냐 그대낭군은
무슨 일로 시를 머쳐서 죽었느냐 양산백아 보구지요 보구지여 화초같이 피는
입아 추화같이 보구지요 보구지요 보구지요 그대 낭군은 무삼일로 죽었느냐 九
年之水에 햇발같이 보구지요

(중략)

보구지요 보구지요/ 원마 위 역 풀어 놓고 / 다시 한번 살으시오 / 十年 讀書
를 다리든 산백이야 죽는단 말이 웬 말이나 / 보구지고 보구지고⁵³⁾

인용문③은 〈양산백·축영대〉에서 축영대가 양산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곡하는 장면이다. 서사시 〈양산백·축영대〉의 음원 자료를 들어보
면 이 서사시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노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때 무당이 축영대의 입을 빌려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분명하
다. 양산백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축영대의 마음이다. 그렇기에 축영대
는 애타게 그의 이름을 외치며 통곡한다.

죽은 양산백을 그리는 축영대의 통곡 소리는 무당의 입으로 굿판에 생생
히 전해졌을 것이다. 이 통곡 소리는 축영대와 처지가 동일한 생자들이 청
하는 수많은 굿판에서 들렸을 터이다. 여기서 생자는 무엇보다 망자와의
감응을 원한다. 즉, 생자는 단절의 상황에서 소통의 길이 만들어지기를 소
망한다. ‘그 길’을 축영대는 사랑의 힘으로 새로 연 것이며, 그리하여 그녀는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신이 될 수 있었다.

53) 『관북지방무가』, 《문굿천두절굿》, 150~151쪽.

5. 결론

함경도 망목굿은 죽음의 의례이다. 죽음으로 인해 생자와 망자가 단절된 상황에서 굿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 생자는 굿을 통해 망자가 저승으로 잘 가기를 희망하면서도 그와 다시 만나기를 소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자와 생자가 소통하는 길이 필요했다. 본 논문은 <양산백·축영대>의 주인공 축영대가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잇는 신이 되는 과정을 살폈다.

먼저 고전소설 <양산백전>과 달리 <양산백·축영대>는 양산백, 축영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서사시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서사시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제차로 알려진 《문굿》과 연관 지어 논의하면 여러 의문점이 발생했다. 실제 망목굿에서 《문굿》의 연행 여부와 《문굿》에서 <양산백·축영대>의 연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임석재, 장주근, 김태곤이 남겨 놓은 조사 보고에는 <양산백·축영대>가 망목굿에서 구연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열쇠는 김태곤이 남긴 <양산백·치원대>에 관한 주석이었다. 그는 이 서사시가 젊어서 죽은 망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본 논문은 김태곤이 이러한 주석을 붙인 이유를 <양산백·축영대>가 혼사굿에서 구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즉, 서사시의 주인공인 양산백, 축영대는 현실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승에서 사랑을 이룬 인물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렇기에 양산백, 축영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령들을 위로하는 신으로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열쇠는 임석재, 장주근이 남긴 《문굿》의 실제 명칭이었다. 임석재, 장주근은 <양산백·축영대>가 구연되는 제차를 ‘《문굿(문굿천두질굿)》’이라 표기했다. 이에 본 논문은 <양산백·축영대>를 ‘문굿’을 넘어 ‘길굿’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양산백·축영대>에서 축영대는 사랑의 힘으로 양산백에게 가는 새로운 길을 놓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기에

축영대는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신이 될 수 있었다.

끝으로 생자와 망자 사이의 끊어진 길을 잇는 신이 되는 축영대의 형상은 망목긋의 또 다른 여인을 떠오르게 한다. 도량선비를 만나기 위해 온갖 고난의 감내하는 청정각시이다. 단절된 망자와 재회를 소망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청정각시는 망자와의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축영대와 여러모로 비슷한 모습을 지니기 때문이다. 추후 망목긋의 〈양산백·축영대〉, 〈도량선비·청정각시〉에 관한 비교 논의를 통해 단절의 상황에서 소통을 모색하는 두 여신의 함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1~414쪽.
김효경, 「巫堂に於ける辭神賽神」 『日本宗教學會第三回大會紀要』, 立正大學宗敎學研究室, 1935, 289~295쪽.
나경수 외, 『호남의 저승혼사굿』, 민속원, 2016, 1~268쪽.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1~509쪽.
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1~107쪽.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 문화재관리국, 1981, 1~319쪽.
전경수 편, 『김효경저작집』(3), 민속원, 2017, 1~519쪽.

2. 논문 및 저서

- 김경섭, 「〈양산백전〉에 나타난 염정담과 군담의 결합 양상」,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117~138쪽.
김경희, 「중국 〈양·축〉고사의 한국적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05쪽.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280쪽.
김동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양산백전〉 고찰」, 『고소설연구』 46, 한국고소설학회, 2018, 5~33쪽.
박진태, 「중국 양축설화(梁祝說話)의 수용과 변용」, 『국문학』 75, 한국어문학회, 2002, 205~235쪽.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1~175쪽.
윤준섭, 「〈도량선비·청정각시〉에 나타난 청정각시 죽음의 의미 -희생제의의 전통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233~270쪽.
윤준섭, 「함경도 망목굿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94쪽.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0, 1~369쪽.
조현설, 「바리데기와 썩의 윤리」, 『국문학연구』 37, 국문학회, 2018, 7~30쪽.

정제호, 「서사무가의 고전소설 수용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4, 1~284쪽.

최길성, 「死後結婚의 意味: 韓·中·日 比較」, 『비교민속학』 1, 비교민속학회, 1985, 3~38쪽.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 저, 변진경 역, 『죽음에 대하여 - 철학자 장켈레비치와의 대화』, 돌베개, 2016, 1~208쪽.

ABSTRACT

Make a path between communication and disconnection,
A Study of the Oral-epics <Yangsanaek and Chukyeongdae>
in Hamgyeong-do

Yoon, Joon-seob

Mangmukgut in Hamgyeong-do, where the epic “Yangsanaek and Chukyeongdae” of “Mungut” is featured, is a ritual of death. Because the ritual[*gut*] begins at the disconnection from the dead of the dead and the living beings. At this time, the living beings hope that the dead will go to the otherworld well, but hope to see them again. To do so, the living beings needed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dea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the main character of “Yangsanaek and Chukyeongdae” becoming a god connecting the cut-off path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First, unlike the classic novel “Yangsanaekjeon”, it was confirmed that “Yangsanaek and Chukyeongdae” is an epic that focuses on the love between Yangsanaek and Chukyeongdae. However, there were many questions when discussing it in connection with “Mungut”, known as the “Yangsanaek and Chukyeongdae”. It is not clear whether “Mungut” was performed in Mangmukgut and “Yangsanaek and Chukyeongdae” in “Mungut”. However, the survey report left by Lim Seok-jae, Jang Joo-geun, and Kim Tae-gon confirmed that there was material to explain why “Yangsanaek and Chukyeongdae” was played in Mangmukgut.

The first was a comment on “Yangsanaek and Chukyeongdae” left by Kim Tae-gon. He explained that the epic only applies to die young. This paper found that Kim Tae-gon made such annotations because “Yangsanaek and Chukyeongdae” was performed in Honsagut(otherworld wedding ritual). In other words, the main characters of the epic, “Yangsanaek and Chukyeongdae”, proved that they did not achieve love in reality, but

they achieved love in the otherworld. Thus, Yangsanbaek and Chukyeongdae can be seen as gods that comfort the spirits who died young without achieving love.

The second was the actual name of “Mungut” left by Lim Seok-jae and Jang Joo-geun. They labeled the ritual procedure, which performed “Yangsanbaek and Chukyeongdae”, as “Munducheondujilgut.” In response, this study attempted to interpret “Yangsanbaek and Chukyeongdae” from the perspective of “Gilgut” beyond “Mungut”. As a result, in “Yangsanbaek and Chukyeongdae”, Chukyeong-dae confirmed that a new path to Yangsanbaek is set by the power of love. Therefore, the Chukyeongdae was able to become a god connecting the broken road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In short, “Yangsanbaek and Chukyeongdae” is a multi-layered epic about a god who comforts the specter who died young without achieving love and a god who reconnects the broken path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Key Words

YangsanBaekjeon, Yangchuk folklore, Mangmugut, Mungut, Munducheondujilgut, Honsagut, Gilgut, death

논문투고일 : 2021.04.15
심사완료일 : 2021.05.02
게재확정일 : 2021.05.10